

여성의 힘으로 평화를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2016 여성평화걷기



2016 여성평화걷기 언론초청 간담회

일시: 2016년 5월 10일. 화요일. 오전 11시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

< 순서 >

사회: 최인숙 (2016 여성평화걷기 기획팀장, 문화세상이프토피아 대표)

1. 인사말.
2. 경과보고 및 행사취지
3. 여성평화 심포지엄 소개
4. 여성평화 걷기 소개
5. 주요 내빈 소개 및 지지발언
6. 패널 소개 & 질의 응답

패널: 안김정애(공동실행위원장,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한미미(공동실행
위원장, 세계 YWCA연합회 부회장)/ 이정아(실행위원,고양파주여성민우회 대표)

주최: 2016 여성평화걷기 조직위원회

후원: 경기도

여성들! 한반도 평화 위해 올해도 DMZ 걷는다

- 5월 28일 임진각에서 2천명 참가하는 여성평화걷기 개최
- 분단 1,2,3,4세대 여성들과 해외 여성들 평화 터전 만들기
- 단절된 남북관계 소통협력으로 바꾸기 위한 여성역할 모색
- 판문점 통한 최초 남북민간교류 주도한 여성들의 정신 계승

여성들은 왜 한반도에서 걷는가

○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갈등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를 휘감고 있는 전쟁의 기운은 오직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만 해소할 수 있다.

남북한은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이해당사국들은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즉각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지난 몇 년간 중단된 남북교류협력을 재개하여 남북 주민들 간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끝없는 기다림 속에 고통받는 이산가족들의 재결합을 하루 빨리 앞당겨야 한다.

○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여 한반도의 영구평화 기반마련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 4조 60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과 전쟁의 위협을 종식시키고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 군비 경쟁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민의 복지, 환경, 평화 정착 등 '생명·평화·상생의 한반도'를 만드는 데 사용해야 한다.

○ 평화구축과정에서의 여성의 리더십 확대

- 여성은 평화운동의 가장 중요한 주체이며, 동시에 무장 갈등과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였다. <유엔 안보리 결의 1325>에 규정된 대로 “갈등의 예방과 해결, 그리고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완전한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모든 여성에 대한 전시 폭력을 철폐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여성들의 DMZ(비무장지대) 걷기는 올해도 계속된다. 남북관계가 단절기를 맞은 가운데 세계 여성운동가 30명이 북에서 남으로 비무장지대를 넘었던 2015년 국제여성평화걷기의 정신을 재현하는 것이다.

32개 여성·평화단체로 구성된 2016여성평화걷기조직위원회(공동대표 김성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박남식 전 경기여성네트워크 대표)는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5월 28일(토)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일대에서 여성평화걷기를 개최한다. 애초엔 세계여성들과 함께 남에서 북으로 올라갈 구상이었지만, 남북관계 단절국면으로 올해는 국내여성, 평화단체들

이 중심이 되어 남쪽 비무장지대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을 포함한 총 6km를 걷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낮 12시30분까지 진행될 여성평화걷기에는 한국의 분단 1, 2, 3, 4세대 여성들과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해외 여성운동가 등 2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지난해 육로로 군사분계선을 넘었던 해외 여성운동가들도 다시 모인다. 육군대령 출신의 미국 평화운동가 앤 라이트(Ann Wright), 국제NGO단체 ‘피스보트’ 메리 조이스(Meri Joyce), 일본 여성국제평화자유연맹 고즈에 아키바야시(Kozue Akibayashi), 최애영(Aiyoung Choi) 전 뉴욕가정상담소 이사장 등이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평화의 열림(인사말, 축하, 길놀이)으로 시작해 임진각 생태탐방로와 평화누리길 6km를 걷고, 평화의 어울림(여성평화걷기 선언문낭독, 공연)으로 마무리 짓는다. 참가시민들이 함께하는 평화 플래시몹, 경기여성평화합창단 공연, 함께누리 풍물패 공연, 평화의 춤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북에서 남으로 군사분계선 넘는 해외여성들 다시 참여

또한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더 나아가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한 여성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5월 24일(화) 오후 2시 이화여대 LG컨벤션홀에서 여성평화심포지엄을 연다. ‘여성, 3.0평화시대를 열다’라는 제목의 이번 심포지엄은 유엔 안보리 최초의 여성권리 결의안인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을 중심으로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세부 주제는 ▲화해와 평화과정의 리더십 ▲위장하는 군사주의 ▲탈핵의 길, 생명의 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 ▲식탁에서 평화협정 테이블까지 등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발표를 한다.

2016여성평화걷기 참가는 여성뿐 아니라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걷는 구간 중 민간인 출입통제구역 통과를 위해 사전신청을 해야 한다. 마감은 5월20일. 홈페이지(www.wpwalk.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는 031-907-1003(고양과주여성민우회)으로 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여성들, 판문점 통한 최초 남북 민간교류 주도

한반도에서 경계를 넘는 여성들의 평화운동 주도는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1~1992년 남북 여성들은 분단 후 첫 남북 여성교류였던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를 위해 판문점을 거쳐 서울과 평양에서 만남을 가졌다. 판문점을 통한 최초의 남북 민간교류의 물꼬를 튼 것은 여성들이었다.

광복 70주년, 남북분단 70주년을 맞아 지난해 글로리아 스타이넴(Gloria Steinem),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메어리드 맥과이어, 리마보위를 비롯한 세계 16개국 여성 평화운동가 30명은 세계 유일의 분단지역인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쪽에서 남쪽으로 비무장지대를 종단하는 '국제여성평화걷기(WomenCross DMZ)'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들과 뜻을 같이하는 국내 여성·평화단체들은 '2015 WomenCrossDMZ 한국위원회'를 구성했고, 여성 평화운동가들은 남북한 정부의 승인을 받아 5월 24일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DMZ를 북에서 남으로 종단하는 국제여성평화걷기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평화와 균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이자 2010년 천안함 사태로 단행된 5.24 대북제재 조치가 내려진 지 5년 째 되는 날로 남북교류가 거의 중단된 상태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2016여성평화걷기조직위원회 (5월10일 현재)

조직위 단체: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경기여성네트워크(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경기자주여성연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파주민족화해센터, 문화세상이프토피아, 고양과주여성민우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주여성인권센터, 너머서, 어린이어깨동무, 여성역사포럼, 이화민주동우회, 에큐메니칼청년네트워크, 21세기서울여성회, 새로운백년을여는통일의병(수도권본부), 세계교회협의회,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참여연대,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 평화어머니회, 평화와통일을위한기독인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여성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김성은(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박남식(전 경기여성네트워크 대표)

실행위원회: 안김정애(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대표, 공동실행위원장), 한미미(세계YWCA연합회 부회장, 공동실행위원장), 이정아(고양과주 여성민우회 대표), 최병일(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이예정(우리민족서로돕기 정책부장), 최인숙(문화세상이프토피아 대표, 기획팀장)

추진위원: 고은광순(평화어머니회), 김은하(에큐메니칼청년네트워크대표), 한명희(여성역사포럼대표), 배현주(세계교회협의회중앙위원), 우희중(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공동대표), 이명혜(한국YWCA연합회회장), 최병일(경기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안김정애(평화를만드는여성회대표), 최인숙(이프토피아대표), 이진옥(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대표)

자문위원: 조형(어린이어깨동무 공동대표)

※ 별첨

1. 2016여성평화걷기 선언문
2. 2016여성평화걷기 안내장

※문의 : 2016여성평화걷기조직위원회 기획팀 Tel.02-3143-1713 Fax. 02-3143-1714
womenpeacewalk@ gmail.com

2016 여성평화건기 선언문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우리는 ‘전쟁 없는 한반도’, ‘생명·평화·상생의 한반도’를 바라는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991년, 92년 남북아시아여성들의 비무장지대 종단, 2015년 국제여성건기의 발걸음을 이어 오늘 다시 평화의 길에 나서는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 화해의 물꼬를 트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한반도를 휘감고 있는 전쟁의 기운은 오직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만 해소할 수 있습니다. 남북한은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이해당사국들은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즉각적인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 지난 몇 년간 중단된 남북교류협력을 재개하여 남북 주민들 간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끝없는 기다림 속에 고통받는 이산가족들의 재결합을 하루 빨리 앞당겨야 합니다.

하나. 평화협정을 통해 한반도 영구 평화의 초석을 놓아야 합니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 4조 60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과 전쟁의 위협을 종식시키고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군비 경쟁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민의 복지, 환경, 평화 정착 등 ‘생명·평화·상생의 한반도’를 만드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 한반도와 세계의 모든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리더십을 확대해야 합니다.

여성은 평화운동의 가장 중요한 주체이며, 동시에 무장 갈등과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였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325>에 규정된 대로 “갈등의 예방과 해결, 그리고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완전한 참여”가 이뤄져야 합니다. 더불어 모든 여성에 대한 전시 폭력을 철폐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평화는 오직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무력으로, 혹은 궁핍한 이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방식으로는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이 땅에서 전쟁의 위협이 영원히 사라지는 그날까지 평화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평화의 길에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남과 북의 모든 여성과 남성, 전 세계의 정의로운 시민들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